

승가교육 진흥기금 마련 위한 '교육불사 후원의 밤' 개최

4월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조계종이 4월을 '교육불사 후원의 밤'로 정하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승가상 구현 및 종단의 인재 발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불사 화주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과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오는 27일 수요일 오후6시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교육불사 후원의 밤'을 개최하고, 교육기금 모연행사를 벌인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승가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승가교육불사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소개하며, 덕승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이 격려사를 할 예정이다. 종단의 교육불사 취지에 공감한 예술인도 참여한다. 가수 이은미 씨와 장사의 씨가 참석해 공연을 선보인다.

후원의 밤은 지난해부터 조계종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가교육개혁의 정착과 지속을 위해 마

련됐다. 교육원장 현승스님은 "자비를 구현하고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출가자를 양성하는 불교중흥의 대작불사는 승가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이번 행사는 교육불사를 안정시키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종단 출범이후 최우선 과제였던 승가교육개혁은 지난해 승가교육진흥위원회 발족과 함께 가속화됐다. 종단은 승가교육진흥위원회를 통해 승가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승가대학 교과과정을 한글화하고 현대화한 것이다. 교육원은 승가교육 관계자와의 오랜 논의 끝에 한글교재 강독자원을 넣어 한글교재를 채택했다. 과목 또한 초기, 대승, 선불교, 음용불교, 계율과 윤리 등으로 세분화하고, 교재출간도 준비 중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승가대학원을

개설해 기존 학림과 율원교육을 심화했다. 초기불전승가대학원을 비롯해 선학, 율학, 한문불전승가대학원, 국제불교학교 등 전문교육기관을 개설해 승가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따마하는 스님들에 대한 지원제도도 강화했다. 장학생 제도를 마련해 국내외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스님에게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지원해준다. 또 승가대학(원) 교수 지원 및 종단교수아사리 위촉 등을 통해 매년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조계종은 "승가교육불사를 통해 종단은 자비를 실천하고 현대사회의 문제에 불교적 해답을 제시할 출가자를 길러내고 이 스님들의 전념으로 한국불교중흥은 이뤄질 것"이라며 종단 안팎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어현경 기자 eonako@ibulgyo.com



동국대 종비생 수행관 백상원 개원법회가 지난 2일 서울 화계사에서 열렸다. 김형주 기자

동국대 학인스님 수행관 개원

2일, 화계사 내 백상원 개원법회

동국대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비생 수행관 백상원이 드디어 완공돼 개원식을 가졌다. 동국대는 지난 2일 서울 화계사 내 백상원에서 개원고법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조계종 교육원장 현승스님, 석립동문회장 영답스님(총무원 총무부장),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 김희옥 동국대 총장과 동국대 학인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기숙사 신축을 축하했다.

백상원은 1964년 종단이 도제양성의 일환으로 종비생 제도를 시작하면서 생겨났다. 1기 종비생들은 1년 6개월간 화계사 큰방을 임시숙소로 사용했다. 그러다 당시 종단 교무부장이었던 승산스님이 원력을 내 화계사 입구에 백상원을 건립했고, 종비생들의 기숙생활을 시작했다. 목조건물은 이후 1991년 현대식 건물로 신축했으나 부실공사로 인해 누수, 전기시설 미흡, 난방시설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본지가 지난 2003년 백상원 부실공사 문제를 제기해 종단 안팎의 관심을 유도했다. 결국 종단 차원의 실태조사와 기금마련까지 이어져왔다. 2010년 5월 공사에 착공, 최근 완공했다. 백상원 전체 공사비는 총 30억 원이 소요됐으며 이 가운데 종단이 21억 원을 지원했다. 연면적은 1989.96㎡(602평)으로,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이다. 1인실 55개와 대중방, 방당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개원법회에서는 수행관 건립을 위해 물신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기 어려운 석립동문회 사무총장 장적스님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어현경 기자 eonako@ibulgyo.com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은 지난 4일 아름다운동행에 일본지진피해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신재호 기자

일본지진피해기금 1000만원 전달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이 일본 지진피해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호성스님은 지난 4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기금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어려운 가운데 지진피해 기금을 마련하느라 고생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될 수 있도록 기원 하겠다"고 밝혔다.

호성스님은 "일본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교구본사에서 동참하는 모습을 보고 참여했다"며 "종단에서 추진 중인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가 전국에 꽃피울 수 있도록 지방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일본대지진 49재 봉행 추진

자승스님, 일한불교교류협회에 제안

총무원장 자승스님(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장)은 지난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일한불교교류협회 이사장 리시오카 료코 스님을 단장으로 한 일본불교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일한불교교류협회 이사장 리시오카 료코 스님은 "한국불교계가 보내준 온정이 너무나 큰 힘이 됐다"며 거듭 감사인사를 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일본대지진 피해 뉴스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할 뿐만 아니라 자

연재해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한·일 양국불교계가 서로 힘들 때 도우며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길 기대한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어 "일본대지진 발생 49일째인 오는 28일 일본의 대지진 피해지역에서 한국의 전통 천도의식으로 49재를 지내고 싶다"고 제안했다. 리시오카 료코 스님은 "오는 15일 일한불교교류협회 긴급이사회가 열리는 만큼 이 문제를 논의해 연락드리겠다"고 답했다.

조성철 사회복지협회장과도 환담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성철 한국사회복지협회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조성철 회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제정과

더불어 공제회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41만 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불교계가 큰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돕겠다"고 말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올해 부처님오신날 행사 정부관계자 정치인 배제

조계종, 봉축행사 실천지침 하달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을 초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관계자와 정치인에 대한 관행적인 등담아우기도 하지 않는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불기2555년 봉축행사 실천지침'을 전국 본·말사에 하달했다.

실천지침에 따르면 전국 본말사는 봉축행사에 정부관계자와 정치인을 초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례적으로 진행하던 정부관계자와 정치인의 등담아우기도 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관계자와 정치인 개인의 신생활은 허용하되, 축사나 자리 배정 등 별도의 의전을 하지 않는다.

이와함께 조계종 총무원은 불기2555년 봉축기간을 오는 11일부터 5월10일까지 한달간으로 정하고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를 봉축행사에 반영하도록 전국 사찰과 불자에게 제안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불교 본연의 모습을 확립하고 종교적 가르침을 바로 세우 나가기 위한 '수행결사'를 실현하기 위해 봉축기간동안 108배

와 참선, 사경 등의 한 가지 수행법을 각자 정한 뒤 수행을 생활화하고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도록 제안했다. '문화결사'를 위해서는 초파일 연등 세시풍속의 가치를 이해하고 개인등을 직접 만들어 공양할 것을 제시했다.

생명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생명결사'를 위해 하루 한 끼는 채식을 하며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것을 실천 예시안으로 제안했다.

사찰이 이웃과 사회와 함께 나누는 터전이 되기 위한 '나눔결사'를 실현하기 위해 봉축기간동안 지역 불우이웃을 지원하고 일본 지진피해와 지역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을 돕기 위한 모금함을 설치해 모금하도록 권유했다.

봉축기간동안 이웃과 사회를 위한 1배 100원 108배 나누기 행사 진행도 함께 제안했다. 종교간 평화와 남북,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평화결사'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봉축기간동안 이웃종교인을 초청해 종교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교류를 위한 기원과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현장에서 사찰 문화공연 그림다

"가수 000가 서울 00교회에서 '000와 함께하는 좋은 친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후원의 밤' 자선공연을 개최한다." 출근길 지하철 무가치 신문 귀퉁이에 1단기사에 배치된 기사다. 그 가수는 활짝 웃는 표정을 지으며 대중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기사 같지만 기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기사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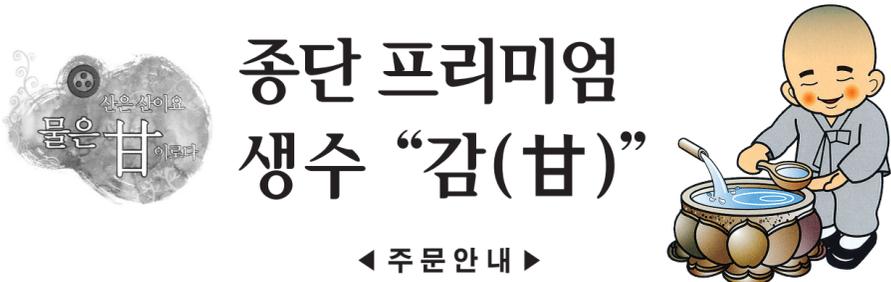
연말만 되면 수많은 개신교 연예인들이 온갖 수상소감에 "하나님은 해로..."하면서 간접적인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럴 때면 독실로 그 연예인을 질타하거나 가끔 단주를 차고 나오는 연예인에게 눈길을 주며 위안삼기도 한다. 교회가 의미 있는 공연마당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찰은 어떤가. 교회보다 좋은 공연장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사찰의 관심부족이나 불자 연예인들의

정성(?)이 부족해서인지 교회처럼 의미 있는 공연소식을 듣기 어렵다. 물론 소형 산사음악회로 많은 불자들이 의미 있는 행사를 하는 사찰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벤트성 행사에 머물기도 한다. 올해 초 조계사에는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에 한 순서이긴 했지만 문화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성격은 다르지만 사찰에서 문화공연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의 크고 작은 사찰(도심사찰도 좋고 산사도 좋다)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작고 알찬 공연'이 펼쳐졌으면 한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찬탄했으면 한다.

여태동 기자 tyedo@ibulgyo.com



부처님오신날 및 연등축제 주문 접수 안내



종단 프리미엄 생수 "감(甘)"

◀ 주문 안내 ▶

종단 프리미엄 생수인 「감(甘)(산은 산이요 물은 감(甘)이로다)」을 금번 '부처님오신날' 및 연등축제에 사용하도록 주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판매된 생수 수익금은 전액 종단 승려복지기금으로 적립됩니다.

품목(용량)	지역	담당자	연락처
500ML/20入 (1BOX)	서울/경기/강원	조영진대리	010-6236-1474
	부산/경남	김중혁주임	010-8512-6429
	대구/경북	강병일과장	011-9572-6524
2L/6入	대전/충청	이래환과장	011-435-1365
	광주/전라	김윤호주임	010-4624-5945

○ 최소 발주 단위는 30박스(500ml) 이상이며, 사전에 주문이 필요
○ 종단 주문 및 문의 사항 : 총무원 재무부 사업팀(02-2011-1760~1)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재무부

"좋은 물은 시원하고 맛이 있으며, 경쾌하고 부드럽고, 향기롭고 깨끗하며, 마실 때에도 목이 메지 않고, 목에 걸리지도 않으며, 마시고 나면 온몸이 편안해지는데 이런 물을 마시면 모든 번뇌와 괴로움이 사라진다." - 아함경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평화·금교·범종



지장 보살

이미타불

관세음 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부 전시 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작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점 합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서 [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http://domy114.com)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